

## 역사박물관의 구성과 전시 그리고 재현 논리 -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제3~4전시실을 중심으로 -

정 호 기(전남대)\*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은 2012년 12월에 개관했다. 이 박물관 건립은 제17대 정부의 역사 인식과 정책을 잘 보여주는 국책 사업이었다. 2008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공표되었던 '성공의 역사', '발전의 역사', '기적의 역사'를 구현하는 것이 이 박물관의 사명이었다. 이 글은 이 박물관의 역사관이 가장 잘 투영된 것으로 판단되는 제3~4 전시실을 주요 연구대상으로 했다. 이 글은 어떤 배경과 맥락에서 이 박물관이 건립 및 구성되었고, 공간 연출의 주안점이 어디에 있었으며, 공간의 재현 논리가 어떻게 관철되었는가를 고찰하는 것이다.

가장 많은 면적이 할당되고, 사업비가 투입된 제3전시실은 제3~5공화국을 대상으로 하지만, 사실상 박정희 시대관이라고 할 수 있다. 제6공화국을 대상으로 하는 제4전시실은 각 정부들의 차이를 드러내는 것 보다, 근래에 세계에서 선호를 받는 한국의 이미지를 보여주는데 초점이 있다. 전시공간은 조명과 주제를 연계지어 제3 전시실은 어둠의 강약으로, 제4전시실은 밝음으로 시대상을 표현했다. 전시공간에는 소품과 전시기법의 사용과 배치가 중요한데, 제3전시실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음을 보여주며, 제4전시실은 첨단전자제품들로 채워져 있다. 한편 대통령 집무실의 배치는 이 박물관의 장소성을 암시해준다. 전시공간의 재현 논리에서 보면, 제3전시실은 성장과 발전의 시대를, 제4전시실은 한국 경제가 선진국 반열에 들어섬을 재현한다. 이러한 특성들을 고려하면, 제3~4전시실은 생활관이나 사회관의 요소들도 갖고 있지만, 보다 지배적인 성격은 홍보관과 산업관의 것으로 평가된다.

주제어 :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전시 구성, 공간 연출, 재현 논리, 박물관의 정치학

\* 여러 사연을 담고 있는 이 논문이 게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많은 분들에게 깊이 감사드립니다.

## 1. 머리말

제18대 대통령 선거 열기가 차츰 냉각되어가던 무렵인 2012년 12월 26일에 대한민국의 역사박물관(이하 역사박물관) 개관식이 열렸다. 역사박물관은 제17대 정부가 출범했던 해에 착공되었고 마지막 해에 완공되었다. 그러므로 기획과 의도를 잘 관철시킬 수 있는 최적의 환경에서 건립되었다고 할 수 있다. 역사박물관의 운곽이 차츰 가시화되자, 시민단체들은 권위주의 시대의 역사관에 기반하고 있고, 전시실이 특히 문제가 많다고 비판했다. 시민단체들은 개관식이 열리던 날에도 기자회견을 열고, 개관 연기를 요구했다.<sup>1)</sup> 하지만 대통령은 개관식에서 4년여에 걸친 성과를 치하하면서 “우리 현대사는 세계사에서 유례없는 성공의 역사이자, 발전의 역사”라고 다시금 뺨기를 박았다.<sup>2)</sup>

학계와 시민단체들의 문제제기와 주장은 역사박물관 건립의 신중론과 성찰론으로 집약되었다. 이들은 역사박물관 건립의 의미가 매우 크고, 국내·외에 미칠 영향이 지대할 것이므로, 보다 더 신중하게 다양한 측면들을 고려하면서 추진되어야 함을 역설했다. 이를 위해서는 학계와 시민사회의 참여가 보장되는 공론장이 필요하고, 토론과 논의를 충분히 하여 이를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돌이켜보면, 역사박물관 건립에 대한 학계와 시민단체의 관심과 개입은 뒤늦은 측면이 있었다. 그도 그럴 것이 역사박물관 건립의 발표는 정치·사회적으로 크게 주목을 받지 못했다. 정부의 기대와 달리, 당시 뜨거운 정치·사회적 갈등 쟁점들이었던 ‘건국 논쟁’과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반대 촛불집회’ 등으로 인해 부차적인 의제였다. 역사박물관을 건립하는 목적에 관한 구체적인 상이 제시

1) 한상권. “역사 없는 역사박물관 ... MB의 마지막 ‘한 건?’” 「오마이뉴스」, 2012. 12. 28.

2) 박영환. “이 대통령 “현대사 성공의 역사 ... 국민 피땀으로 일궈.”” 「뉴스시스」, 2012. 12. 26.

되지 않았던 것도 이를 쟁점화 하는 것을 억제했다. 이처럼 여기에는 여러 이유들이 작용하면서 과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조용하게 착수되었다. 지난 정부들의 유사 국책사업들이었던 독립기념관, 전쟁기념관, 일제총독부 청사의 해체와 경복궁 복원 그리고 중앙박물관, 백범기념관 등의 건립 등이 요란스럽게 시작되었던 것과 대조적이었다.

그렇다고 이명박 정부가 역사박물관 건립에 관심이 적었던 것은 아니었다. 역사박물관 건립은 정부의 핵심 정책이었고, 대통령의 애정도 깊었다.<sup>3)</sup> 하지만 정부의 관심과 달리, 역사박물관 건립 과정은 외부로 잘 드러나지 않았다. 언론이 역사박물관 건립을 기사화했던 것은 추진 기구였던 ‘국립대한민국관건립위원회’가 출범했던 2009년 4월 6일, 명칭을 ‘대한민국역사박물관’으로 최종 확정지었던 2009년 10월 19일,<sup>4)</sup> ‘기본계획’이 발표되었던 2010년 3월 2일, ‘대국민 업무보고’가 제한적으로 이루어졌던 2011년 2월 25일 등 주요 사안들이 결정되었던 무렵과 개관을 앞둔 무렵이었다. 이 시점들 외에는 역사박물관에 관한 소식이 간헐적으로 알려졌을 뿐, 학계와 시민들이 무엇이 어떻게 진행되는가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웠다. 역사박물관 건립에 관한 내용은 사실상 완공이 임박했던 무렵에 이루어진 국정감사 요구 자료를 통해 어느 정도 알려졌다.

역사박물관 건립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사회적 갈등과 분열을 극복하고 국민적 소통과 통합을 통해 국격을 높이는 것”이었지만,<sup>5)</sup> 건립 과정은 사회적 토론과 논쟁이 이루어질 수 있는 장과 기회를 만들지 않은 채 진행되었다. 역사박물관 건립의 주요 사상적 배경이었던 ‘건국’ 논쟁과 현대

3) 장용석, “이 대통령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전시자료 직접 챙기겠다.” 『아주경제』, 2011. 1. 13.

4)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의 영어 표기는 ‘National Museum of Korean Contemporary History’로, 직역하면 ‘국립한국현대사박물관’이다.

5) “국립대한민국관, ‘대한민국역사박물관’으로 명칭 확정.” 『대한민국역사박물관 보도 자료』, 2009. 10. 16.

사에 관한 다양한 견해들이 재연될 가능성이 높았고,<sup>6)</sup> 그것은 본래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을 수 있다. 유사 사업들에서 흔히 그랬던 것처럼, 공표되었던 건립 목적은 추상적이고 개념적인 것에 불과했고, 굳이 학계와 시민사회의 의견과 지혜를 모을 필요성을 못 느꼈을 것이다. 왜냐하면 역사박물관 건립은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선언되었고, 거기에 사업 방향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구상이 이미 제시되어 있었기 때문이었다.

아무리 순수한 의도임을 강변할지라도, 국가가 주관하는 박물관 건립은 정치적 행위의 연속이라는 시각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이다(Benedict 1991, 228). 역사 논쟁과 갈등이 고조되었던 시기에 역사박물관 건립이 선언되었다는 것만으로도 민감한 정치 쟁점이 될 개연성이 충분했다. 그러므로 역사박물관 건립은 현대사에 대한 집합적 기억의 국가적 재구성 활동이 보다 활발해질 것이며, 이를 바탕으로 정체성 형성과 정신적 질서화를 한층 강화하고 확실하게 담금질할 것임을 표방한 것과 다름이 없었다. 역사박물관 건립 추진 배경으로 밝힌 “국민의 자긍심 고양 및 국민통합으로 국가 미래 발전의 원동력을 확보하기”<sup>7)</sup> 위함이라는 문구는 분명한 전달 메시지였던 것이다. 이는 볼프룸(E. Wolfrum)이 “역사는 민족이나 사회집단을 통합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주장에 정확히 부합했다(Edgar 2007, 13). 따라서 박물관과 기념관을 연구하고 고찰하기 위해서는 다의적이며 중층적으로 작용하는 정치성을 파악해야 하며, 역사적 맥락을 중시하여 이해해야 한다(金子淳 2002, 71)는 주장은 깊이 숙고되

<sup>6)</sup> 역사박물관 건립이 선포된 직후인 2008년 11월에 교육과학기술부는 고등학교 근현대사 교과서의 수정을 지시했다. 교과서 저자들은 정부를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는데, 2013년 2월 2월 15일 대법원 제2부가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김혜연. “대법원, MB정권의 ‘교과서 우경화’ 급제동.” 『뉴스앤뉴스』, 2013. 2. 16.).

<sup>7)</sup> 역사박물관 개관식이 임박하여 배포했던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건립 경과 및 개요」라는 문건 자료.

어야 한다. 이는 ‘박물관이라는 장치가 특정한 이데올로기로 매개된 가치를 보급하는 수단으로 선택되어 왔다’는 평가(金子淳 2009, 13)가 역사박물관을 분석하는 중요한 지점이 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역사박물관은 역사학 분야에서 대부분 탐구되었다. 이 연구들은 역사박물관의 건립과 더불어 주제도 일정하게 바뀌었다. 초기에는 외른 뤼젠(Jörn Rüsen)이 정의한 ‘역사문화’라는 관점에서 역사박물관이 어떻게 건립되어야 하는가가 조명되었고(이동기 2011), 다음으로는 역사박물관 건립에 학계와 시민사회의 관심이 필요함을 주장하면서 추진과정과 문제점 그리고 건립 구상과 전시 방향이 비판적으로 분석되었다(이동기·홍석률 2012). 역사박물관이 개관한 이후에는 그동안 진행되었던 과정을 성찰하고 전시 공간들이 어떤 특성과 문제점을 갖고 있는가를 지적하면서 내용과 운영에 관한 토론과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되었다(김성보 2013 ; 이기훈 2013 ; 양정심 2013 ; 김아람 2013).

이러한 논의들을 바탕으로 이 글은 역사박물관을 전시 공간의 연출과 재현 논리의 측면에서 분석한다. 이 글은 정치적 메시지를 담은 건립 목적이 먼저 발표되었던 역사박물관이 이에 관한 주제와 서사 그리고 이미지를 어떻게 구현했는가를 주목할 것이다. 연구 대상은 역사박물관 건립이 처음 구상되던 무렵부터 관심이 집중되었던 1961년 이후를 재현한 전시실들이다. 이 글에서 수집·검토했던 자료들은 크게 3종류였다. 첫째, 관련 정부 기관에서 생산한 기본계획이다. 기본계획은 2010년 3월에 공개되었지만, 2011년 2월 25일 제한적으로 개최되었던 ‘대국민 업무 보고’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그렇지만 개관이 임박할 때까지 계속 변경되어 최종안을 특정하기가 어렵다.<sup>8)</sup> 이 글은 2010년 8월에 정리

<sup>8)</sup> 기본계획이 계속 바뀌었다는 것은 전시 내용과 도록들의 내용이 불일치하다는 점에서 잘 드러난다. 개관이 임박했던 2012년 12월 23일에 배포되었던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건립 경과 및 개요」도 전시 내용과 일치하지 않은 점들이 일부 발견된다.

되었던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건립기본계획」(이하 건립기본계획)을 중시했다. 둘째, 역사박물관이 발간한 두 권의 전시 도록들이다. 도록들은 기본 구성과 구조는 비슷하나 수록된 서사와 이미지 등에서 차이가 크다. 백색 도록(대한민국역사박물관 2012a)은 전시실의 서사를 확대·확장했으며, 시대적 배경에 대한 소개 그리고 전시 자료들에 관한 보다 상세한 설명을 하고 있다. 이에 비해 황색 도록(대한민국역사박물관 2012b)은 전시실에 게시된 서사를 기본으로 약간의 각색과 함께 설명이 추가되어 있다. 한편 이들 도록과 실제 전시 공간은 다른 점들이 다수 발견된다. 이것은 계속해서 전시 내용들이 바뀌었는데, 이를 미처 반영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셋째, 전시실들에서 확인할 수 있는 서사와 이미지 그리고 1,500여 점의 자료와 90건의 영상 등이다. 전시실은 입체적이며, 공간에 구현된 이미지와 영상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도록으로 파악할 수 없는 점들이 매우 많다. 따라서 역사박물관의 다면적이고 입체적인 고찰을 위해서는 이것들도 연구 대상에 포함되어야 하는데, 영상자료 등은 파악하기에 한계가 있었다.

## 2. 역사박물관의 건립 배경과 전시 공간의 구성 및 특성

### 1) 건국 논쟁과 건립 배경

2008년은 광복 63주년이면서 건국 60주년이 되는 해였다. 건국 60주년이라는 시기적 특성에 따른 것이기도 했을 터이지만, 정부와 정치권의 지원과 후원을 받은 건국 담론이 광범위하게 설파되었다(박명림 2008, 58). 학계와 시민사회 일각에서는 이러한 역사 인식을 비판하고, 토로하는 집합행위들로 분주했다. 그렇지만 언론의 보도 행태와 내용으로 보면, 건국 담론의 판정승이었다고 해도 그르지 않았다. 그동안은 8월 15일의 의미가

광복인가 또는 해방인가를 중심으로 주로 논의되었고(신주백 2006, 150-154), 건국 담론이 중요시되었던 경우는 종종 있었지만, 대세를 이루지는 못했다. 근현대사에 관한 연구가 활발해진 이래, 8월 15일의 의미를 연구하거나 관심을 갖던 사람들이 건국이라는 프리즘에 관심이 적었던 것은 사실이었다. 엄밀히 말하면, 정부 수립과 한국의 형성 과정에 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으나, 그 역사적 의미를 광복과 해방에 견주어 파악해야 할 정도로 동급이라고 의미부여하지 않았다.

건국은 대한민국이라는 국민국가의 형성을 의미하지만, 분단국가 수립을 정당화하는 의미도 있었다. 이러한 다면성으로 인해 건국 시기에 관한 시대상이 탐색되지 않으면, 건국담론은 한민족, 단군의 자손, 배달민족 등의 상징들을 매개로 구축되었던 정체성과 한국인의 최대 숙제가 통일이라고 각인시켰던 담론들과 논리적으로 상충하거나 배치되기 십상이다. 또한 지난 여러 정부들이 국민적 결집과 변화의 동력을 모으려고 건국이라는 용어를 전유했기에 순수함보다는 정치적 수사로 읽히는 효과도 작용했다. 이를테면 김영삼 정부가 출범했던 1993년에 대통령은 ‘제2의 건국’이라는 용어를 빈번하게 사용했다(강정구 1993). 김대중 정부도 1998년의 ‘건국 50주년 기념 8·15 경축사’에서 ‘제2의 건국’을 선언했다. 정부는 민간합작으로 ‘제2건국위원회’를 출범시켰고, 이를 바탕으로 ‘제2의 건국운동’을 전개했다(새정치국민회의 지방자치위원회 1998).<sup>9)</sup> 이 현상들은 탈권위주의기에 있던 과도기 정부들이 정치적 혹은 정책적 중요 의제로 ‘건국 담론’을 설정했음을 말해준다.

건국 담론과 보다 긴밀한 관계를 맺었던 이명박 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건국 60주년 기념사업’에 애정을 쏟았다. 정부는 2008년 5월에 국무총리실 산하에 「건국 60주년 기념사업위원회(이하 기념사업위원회)」를 출범시

<sup>9)</sup> 이진영. “‘제2건국’ 허울뿐인 국민운동.” 『동아일보』, 1999. 5. 21.

키고, 「건국60주년기념사업추진기획단(이하 추진기획단)」을 설치했다.<sup>10)</sup>

기념사업위원회가 제대로 가동되지 않았던 무렵이었던 6월 11일에 추진 기획단은 60개 주요사업을 공개했다. 총 8개의 대주제 가운데 ‘건국의 의미 상징화 사업’이라는 주제에 4건의 사업이 편성되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문화체육관광부를 주관부서로 했던 “건국 60년 기념 ‘현대사박물관’ 건립 추진”이었다.<sup>11)</sup> 이 계획은 같은 해 8월 4일에 개최되었던 “대한민국 건국 6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대통령이 현대사박물관(가칭 ‘기적의 박물관’)을 건립하겠다고 발언하면서 사실상 확정되었다.<sup>12)</sup>

현대사박물관 건립 계획이 국민에게 공식적으로 선언되었던 것은 “제 63주년 광복절 및 건국 60주년 기념 8·15 대통령 경축사”였다. 경축사에서 현대사박물관과 관련하여 가장 강조되었던 문장들은 “대한민국 건국 60년은 ‘성공의 역사’였습니다. ‘발전의 역사’였습니다. ‘기적의 역사’였습니다”였다.<sup>13)</sup> 경축사는 특히 ‘기적의 역사’가 무엇인가를 알리는데 발언의 많은 분량을 할애했고, 이어서 “이 역사가 기록되고 새롭게 이어질 수 있도록 현대사박물관을 짓겠다”<sup>14)</sup>고 했다. 또한 경축사에서 ‘광복’은 2번,

10) 「연합뉴스」, “건국 60주년 기념사업위 내일 출범” 2008. 5. 21. 기념사업위원회는 한승수 국무총리, 현승종 전 국무총리, 김남조 숙명여대 명예교수를 공동 위원장으로 했다. 그 외 정부위원 14명은 장관급 공무원들이었고, 민간위원 50명은 5개 분야에서 구성되었다.

11) 박주연. “정부, 건국 60주년 기념사업 60건 선정.” 「뉴스시스」, 2008. 6. 11.

12) 대통령은 현대사박물관을 “지를 장소를 물색 중”이라고 했으나, 언론은 당시 문화체육관광부 부지에 건립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우은식·김진주. “광화문 일대 ‘국가 상징거리’ 조성.” 「뉴스시스」, 2008. 8. 4.

13)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건립기본계획」(2010. 8.)에는 건립 배경을 ① 대한민국의 성장과 발전은 현대 세계사에서 가장 성공한 근대화 혁명, ② 고도압축 성장의 결과로 발전의 성장통도 발생, ③ 국민의 긍정적 역사인식 및 자긍심 고양으로 사회통합 실현 필요, ④ 21세기 글로벌코리아 모델로 승화, 국격과 국가브랜드 제고에 기여로 제시했다. 그리고 건립 목표는 ①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기록하고 국가적 정체성을 찾는 공간, ② 대한민국의 발전 여정을 통해 국민소통과 화합의 계기가 되는 공간, ③ 대한민국의 역사와 현재를 후손에게 이어가게 하는 공간, ④ 대한민국 정신문화의 원형이 세계로 뻗어 나가는 공간이었다.

14) 역사박물관 착공식(2010. 11. 25.)을 앞두고 문화관광체육부가 배포한 「보도자료(11. 23.)」에는 경축사의 내용이 압축 정리되었다.

‘건국’은 9번 언급되었다는 점에서 알 수 있듯이, 현대사박물관 건립은 건국 담론으로 충만한 공간을 구성해야 한다는 분명한 사명감에 근거하여 착수되었다.

## 2) 전시 공간의 구성과 제3, 4전시실의 특성

박물관이 건립되기 위해서는 자료 확보와 더불어 적절한 장소와 건물이 필요하다. 이것은 박물관의 상징성과 정체성이 갖는 효과를 극대화하는데 기본을 이루는 요소들이다. 여러 국내·외 박물관들이 옛 건물이나 유서 깊은 장소들에 위치하는 이유들이 이러한 점들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더욱이 역사박물관의 주제가 근현대사이므로 장소성과 밀접한 관계가 중요했다. 이 맥락에서 보면, 역사박물관이 광화문 광장에 인접한 문화체육관광부 청사에 입지한 것은 긍정적이었다. 이 일대는 사람들의 왕래가 빈번하고, 역사·문화 공간과 장소 그리고 건물이 인접해 있어서 연계 효과를 거두기가 용이했다. 역사박물관 건물의 연혁도 상징성의 의미를 확대시켰다. 1961년에 완공되었던 이 건물에 처음 입주했던 것은 박정희 정부의 보육기였던 ‘국가재건최고회의’였다. 박정희 소장은 청와대에 입성할 때까지 이곳에서 업무를 보았다. 1986년까지 경제기획원과 재무부 같은 역대 군사정부들의 핵심 부처들이 이 건물을 사용했다는 점도 박물관의 장소성을 논할 때 중요하게 인지되었다.

박물관의 기능과 역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료 수집·관리·보관이며, 이를 바탕으로 조사·연구·전시·교육이 이루어진다.<sup>15)</sup> 그래서 박물관 건립은 어느 정도 수집·축적된 자료를 기반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역사박물관은 이와 다른 형편이었다. ‘현대사박물관’으로 촉발되었던 역사박물관 건립은 2009년 10월 19일에 명칭과 주제가 확정되었는데, 독립기념관, 전쟁기념관, 민속박물관, 서울역사박물관, 국가기록원, 대통령기

15)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법률 제10367호) 제2조 정의에서 알 수 있듯이, 전시 기능은 후순위이다.

록관 등과 기능 및 역할이 중복되었다.<sup>16)</sup> 이처럼 기반이 부실했던 역사박물관 건립은 기증 캠페인과 자료 구매에 역점을 둘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기증운동의 성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해서<sup>17)</sup> 많은 자료를 구매해야 했고, 유관 기관들의 협조를 받아야 했다. 더 문제는 역사박물관 건립이 중장기적 안목에서 성찰할 조건과 환경을 갖추지 않았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역사박물관은 처음부터 전시에 주안점을 두었고, 대통령 임기 내 개관을 잠정 목표로 설정했기 때문이었다.

〈표〉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제3, 4전시실의 주제별 분류

대주제	중주제	소주제
제3전시실 대한민국의 성장과 발전	경제개발과 산업화	경제개발의 추진
		과학기술의 발달과 보급
		산업 역군의 해외 진출
		국가안보와 자주국방을 향한 노력
		한국 경제의 성장
	변모하는 도시와 농촌	도시화의 진전
		성장의 그늘
		새마을운동
		문화의 다양화·대중화
	시민사회의 성장과 민주주의	1960~1970년대 민주화운동
		1980년대 민주화운동
	제4전시실 대한민국의 선진화,	세계로 나가는 대한민국
세계 속의 한류, 한국 문화		
세계 속의 한국 사람들		

16) 전국에 근현대사를 주제로 하는 20여개 이상의 박물관이 운영되고 있다. 건립기본계획에서는 이를 약점으로 파악했다.

17) 역사박물관은 개관식 무렵에 발표했던 ‘경과 및 개요’에서 자료 4만여 점을 확보했는데, 27,829점은 구입한 것이고, 11,534점은 기증받은 것이라고 했다. 공개한 기증자 명단은 2010년에 18명, 2011년에 65명, 2012년에 65명이었다. 전시 자료에서 기증자가 명기된 자료는 기업체가 제공한 것을 제외하면 매우 드물었다.

세계로의 도약	경제 선진국을 향하여	첨단기술의 발전
		삶의 질 변화
		세계 속에 우뚝 선 대한민국
	대한민국의 미래	대한민국의 미래

역사박물관은 상설전시실과 기획전시실로 구분된다. 기획전시실은 1층에, 상설전시실은 3~5층에 위치한다. 이 글의 주요 연구 대상인 제3~4전시실은 5층에 있다. 제1전시실은 1876년부터 1948년 미군정까지이고, 제2전시실은 1948년 정부수립 직전부터 1961년 5·16군사정변 발발까지이다. 그 동안의 통사들에서는 해방 혹은 광복과 6·25전쟁 혹은 4월혁명이 큰 의미를 있는 역사의 전환기로 파악했는데, 역사박물관은 이와 다른 관점을 보여주었다. 따라서 최근 현대사에서 열띤 논쟁의 대상이 되는 시기와 사건들은 제2전시실 이전으로 모아져있고, 제3전시실은 여전히 많은 호응을 받는 발전담론으로 서문을 시작하고 있다.

<표>와 같이, 제3전시실은 1961년부터 1987년까지 즉, 3~5공화국 26년을 대상으로 한다. 이때는 군부가 집권했던 대표적인 시기이며, 과거사 청산과 관련하여 권위주의 시대로 규정된다. 그렇지만 제3전시실의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대한민국의 성장과 발전’이 대주제이다. 이것으로 보면, 군부와 권위주의의 흔적을 발견하기 어렵다. ‘경제개발과 산업화’, ‘변모하는 도시와 농촌’, ‘시민사회의 성장과 민주주의’라는 3개의 중주제와 11개의 소주제에서는 이 점들이 일부 언급되고 있지만, 부차적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제4전시실은 1988년 이후 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른바 6공화국에 해당된다. 이 전시실은 ‘대한민국의 선진화, 세계로의 도약’이라는 대주제에 ‘세계로 나가는 대한민국’, ‘경제 선진국을 향하여’, ‘대한민국의 미래’라는 3개의 중주제와 7개의 소주제로 구분되었다. 주제로 보면, 제3전시실에서는 ‘세계’라는 단어를 찾아보기 어려운 반면, 제4전

시실은 온통 ‘세계’라는 용어로 점철되어 있다. 그리고 ‘선진화’는 이명박 정부에서 애용했던, 거의 모든 국책사업의 추진 목적으로 언급되었던 용어였는데, 여기에서는 주로 스포츠, 문화, 경제에 국한되어 사용되고 있다.

각 전시실들의 면적 할당도 흥미롭다. 제1, 2, 4전시실은 모두 680㎡로 동일한 반면, 제3전시실은 960㎡로 가장 넓은 면적이 할애되어 있다. 이것은 각 전시실의 면적들이 연대기적 시대 분할과 비례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가장 보여주고 싶은 대상과 중요시하는 주제에 많은 공간을 할당한다는 점에서 보면, 제3전시실이 강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3. 전시 공간의 연출 : 조명, 자료와 공간의 활용, 배치

자료는 박물관을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자료는 전시 공간에서 적절하게 배열·배치되어 서사적 관계를 형성하게 하고, 특정한 문제 의식과 주제를 표상한다. 박물관 건립 또는 운영 주체의 의지는 전시 공간을 통해 관람객에게 전달되는데, 그 효과를 최대화하기 위해 공간 디자인, 유물의 배치, 조명, 보조 텍스트 등이 활용된다(전진성 2004, 84-85). 여기에서는 조명, 자료와 공간의 활용 그리고 배치(공간 디자인)를 중심으로 살펴볼 것이다.

첫째, 전시 공간의 조명과 주제의 관계이다. 조명은 역사박물관뿐만 아니라, 모든 전시 공간들이 효과를 높이기 위해 기본적으로 고려하는 전시 기법이다. 역사나 사건을 주제로 한 박물관이나 기념관에서는 ‘어둠에서 밝음’으로 조명을 전환하거나, 주제에 따라 조도의 차이를 두는 전시 기법을 흔히 사용한다. 조명을 활용한 전시 기법은 역사박물관에도 전반적으로 적용되었다. 즉 개항과 근대화시기에서 5·16군사정변의 시기를 대상으로 하는 제1, 2전시실은 대부분이 어둡다. 반면 제3전시실은 중간 정도의 조도이고, 제4전시실은 밝은 조명으로 차별화했다. 따라서 제3전시실과

제4전시실은 잇달아 있지만, 조명의 차이로 각 공간들이 표상하는 분위기와 이미지가 달리 인식된다. 역사박물관은 각 전시실들의 조명을 통해 어둠의 시대에서 밝음의 시대로 점차 변화했고, 오늘날은 빛을 활용하여 긍정적인 이미지를 최대로 표상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조명은 두 전시실뿐만 아니라, 각 전시실 내의 주제들에 맞추어 차이를 부각시키는 기능도 한다. 특히 제3전시실의 중주제에 의한 차이화가 이를 잘 보여주는 사례이다. 이를테면 경제개발과 산업화, 변모하는 도시와 농촌에 관한 부문에서는 상대적으로 조명이 밝다. 이로 인해 두 전시 공간은 비교적 자연스럽게 연결된다. 물론 이 공간들에서도 어두운 부분들이 있는데, ‘국가안보와 자주국방을 향한 노력’과 관련된 부분이 그러하다. 특히 ‘대립과 화해를 거듭한 남북관계’ 부분은 마치 이명박 정부에서의 남북관계를 보여주듯이, 어둡게 처리되었다. 반드시 조명에 기인한 것은 아닐 터이지만, 수차례에 걸친 답사에서 공통적으로 목격했던 것은 관람객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잘 드러내지 않는다는 점이었다. 그리고 해설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설명을 하지 않았다. 제3전시실에서 가장 어두운 부분은 ‘시민사회의 성장과 민주주의’에 관한 주제를 전시한 부분이다. 이곳에서는 전시판과 자료 전시대, 그림과 시 등이 게시된 부분들에만 제한적으로 조명이 비추었다. 이처럼 정치·사회적 갈등이나 대립 또는 소외되거나 배제된 사건과 부문 그리고 남북관계 등을 주제로 하는 전시 공간은 모두 어두웠다. 이는 조명을 통해 사회구성원의 자유와 민주주의가 억압되었던 암울한 시대를 표상하고, 민주화운동 전시물들을 비추는 빛은 새로운 시대를 지향하는 희망으로 표현하려했던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렇지만 이러한 빛의 대조 혹은 대비는 앞의 중·소주제 전시공간들의 조명 효과와 일치하지 않는 것이어서 일관성 있는 표현이라고 말하기 곤란하다.

제4전시실은 영상실과 영상물이 작동하는 특정 공간을 제외하면, 전체

가 밝은 빛으로 채워져 있다. 제4전시실은 적용된 전시기법의 특성상 전시품들이 많은 빛을 발산하고 있어 밝은 공간의 이미지를 배가시킨다. 즉 첨단 디지털 제품들과 대형 전시 스크린 등이 소품들과 전시기법으로 활용되어 다채로운 빛이 조명과 혼재된 밝은 공간을 표상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선진화, 세계로의 도약’이라는 대주제를 어둠으로 표현할 수 없었을 터이다. 밝은 조명은 활력이 넘쳐흐르고, 희망적이며, 여러 방면에서 변영의 시기를 강구하는 한국의 현재성과 미래를 최대도로 부각시키는 효과를 나타낸다. 이와 같은 빛을 통한 재현은 6공화국이 근현대사에서 최고의 시대임을 표현하고 있지만, 단절되지 않았던 권위주의의 유산과 갈등 그리고 불평등 등을 비롯한 한국 사회의 제반 문제들을 은닉하고 은폐하는 것이기도 했다.

둘째, 자료와 소품의 전시 형태와 공간 활용의 측면이다. 이것들은 전시 공간의 주제를 명확하게 입증하고 성격을 돋보이는 기능을 하는데, 비용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전시실을 구성하는데, 가장 많은 비용이 투입된 곳이 제3전시실이었고, 다음이 제4전시실이었다. 비용이 많이 지출되었다는 것은 전시 자료와 소품의 양과 질이 우월하며, 공간 활용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특히 ‘경제개발과 산업화’를 주제로 하는 전시 공간에는 많은 공력이 투입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전시 공간에는 밝은 조명과 더불어 많은 자료와 소품이 배치되어 있는데, 전시 연출을 위해 도입한 여러 개의 컨테이너들이 압권이다. 컨테이너들은 수입·수출이라는 상징성을 드러내며, ‘외부의존형’ 경제 성장(공제육·조석곤 공편 2005, 21)이 이루어졌음을 잘 보여준다. 또한 컨테이너들은 자료와 소품의 전시대로도 이용되고 있는데, 정부 주도의 개발정책(최용호 1995) 하에서 성장했던 대기업체들이 생산했던 각종 상품들, 이를테면 전자제품, 자동차, 선박 등이 ‘1호’라는 설명을 붙인 채 배열되어 있다. 그리고 측면과 반대편 벽면들에는 조선소나 포항제철소 등에 관한 대규모 스크린이나 영상들이

흘러나오며, 경제발전을 보여주는 각종 지표들과 이미지들이 강력한 원색으로 게시되어 있다. 그래서 마치 대기업의 산업관이나 홍보관을 연상케 하는데, 공간 활용이 적극적이고 최대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도 돋보인다.

이와 대비적으로 ‘시민사회의 성장과 민주주의’의 전시 부문은 여백이 많다. 이곳은 역사박물관의 모든 전시실에서 여백이 가장 많은 공간에 해당되기도 한다. 전시기법도 국립중앙박물관이나 국립민속박물관 등에서 애용하는 유물 전시와 차별성이 없는데, 이 주제에 적합한 최선의 전시 기법인지 의구심을 심어준다. 사진, 책, 유인물, 신문, 잡지 등을 배열하는 방식으로 인해 더욱 그렇게 보일 수도 있다. 그림이나 시로 채운 부분에서 전시 공간의 독창성을 주장할 수도 있겠으나, 공간 활용이 소극적인 것은 분명하다. 이러한 현상은 전시할 내용과 자료가 부족해서라기보다는 관심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관심과 세심함의 부재는 이 주제에 관한 서사들에서도 잘 입증된다. 이 주제에 관한 전시 부분에서 처음 만나게 되는 것은 3개의 문장으로 설명한 ‘민주화 운동’이라는 전시판이다. 이 전시판 하나만 살펴보아도 문장들이 정련되어 있지 않고, 수많은 오류들로 점철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첫째, 학계나 공식적으로 사용되는 명칭과 용어를 따르지 않고, 임의로 띄어쓰기를 하고 있다. 이를테면, 민주화운동은 ‘민주화 운동’으로, 5·18민주화운동은 ‘5·18 광주민주화 운동’으로, 3선개헌반대투쟁은 ‘3선 개헌 반대 투쟁’으로, 재야와 지식은 엄연히 지칭하는 것이 다른데도 불구하고 ‘재야 지식인’으로 기술하는 것 등 수많은 오류들이 발견된다. 둘째, 법률이나 공식적으로 통용되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 이를테면 2006년 3월 24일부터 법률 제7911호에 의거하여 ‘광주민주화운동’을 ‘5·18민주화운동’ 개정했는데도 ‘5·18 광주민주화 운동’으로 명명하고 있고, 6·10민주항쟁 혹은 6월(민주)항쟁으로 국가기념식이 개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정확히 명기하고 있지 않고 있다.<sup>18)</sup> 셋째, 논리의

비약과 왜곡이다. 민주화운동이 왜 발생했는가에 대해서는 명시하지 않고, 몇 가지의 사건들로 가름하고 있다. 비약의 절정은 전두환 정부가 직선제 개헌을 받아들여 헌법을 개정함으로써 마치 민주화에 기여한 정부인 것처럼 오인할 수 있도록 표현한 것이며, 더 나아가 이를 ‘산업화와 더불어 민주화라는 또 하나의 과업을 달성하였다’라고 서술한 점은 ‘노태우 정부가 민주화된 정부인가’를 비롯해 합의되지 않은 수많은 논쟁들을 담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현상들이 예정된 것이었음을 보여주는 근거가 있다. 역사박물관 개관 준비에 한창이던 시점에, 한 언론사는 이와 관련된 자료 수집이 난항을 겪고 있다고 보도하면서 ‘민주화운동 세력과 현 정권의 갈등 관계를 보여’준다고 기술했다.<sup>19)</sup> 여기에서 ‘민주화운동 세력’이 누구를 지칭하는 것인지가 불분명한데, 역사박물관이 밝힌 자료협조 기관들의 목록에서도 관련 자료를 수집·보관하고 있는 기관과 단체들이 확인되지 않는다.<sup>20)</sup> 내밀한 이유는 확인할 수 없지만, 안전행정부 산하의 공공기관인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와도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정부의 지원금으로 여러 관련 단체들이 운영되고 있는데, 이들과 협력 관계도 맺지 못했다는 것은 이 박물관 건립의 정치적 지향과 사회관계를 단적으로 말해준다.

한편 제4전시실은 첨단 제품들과 기념품 그리고 이미지와 영상 등으로 구성되었다. 역동적인 스포츠 장면들과 인기를 구가하는 문화산업의 영상들을 연속해서 비춰주고 있는 대형스크린, 아날로그와 디지털 전시가 조화를 이루는 공간, 각종 기념품, 비행기 실내 모습을 이용한 정보검색실,

18) 이후의 전시관들에서는 ‘5·18 광주민주화운동’과 ‘6월 민주 항쟁’으로 명명하고 있는데, 이는 일관성이 없는 것이다.

19) 홍찬식. “첩첩산중의 대한민국역사박물관.” 『동아일보』, 2012. 8. 15.

20) 건립기본계획에는 관련 자료 ‘소장처’에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포함되어 있고, ‘전시콘텐츠 수집분야와 유관시설’에 5·18기념관이 명기되어 있다.

그리고 최신 디지털 제품들로 채워져 있다. 전시기법은 고정식이 아니라 가변적 것이 많은데, 유행의 흐름에 기민하게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정부를 의식한 심사숙고의 흔적을 엿볼 수 있는 전시 공간과 연출이다. 이를 가장 잘 보여주는 부문은 제3전시실의 마지막 소주제인 ‘1980년대 민주화운동’의 전시에서 제4전시실 도입 전에 위치하고 있다. 전시의 전반적 흐름으로 보면, 이 공간은 비연속적이고, 돌출적으로 인식된다. 이 공간은 광장에서 열병식을 거행하거나 반대자를 처형함으로써 통치자의 힘을 과시하듯이(박정자 2008, 166), 전시 공간들의 절묘한 지점에서 강력한 메시지를 직접적으로 발산하고 있다. 이 공간은 도록들뿐만 아니라, 전시 관련 자료들 어디에도 확인되지 않다는 점에서도 특별하다. 도록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누락되었다고 볼 수도 있겠으나, 그럴 가능성은 희박하다.

이 공간에는 제목이 붙어있지 않다. 그렇지만 대통령 집무실을 재현한 것임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다. 주요 구성물은 중압감을 주는 책상과 의자, 태극기와 대통령 문양의 소품들, 그리고 대통령 초상화들이다. 그런데 이러한 구성물보다 관람객의 시선을 끄는 것은 따로 있다. 역사박물관 전시실들 가운데 외부를 조망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이라는 점이다. 이 공간에는 큰 액자와 같은 창을 통해 자연의 빛이 들어오며, 경복궁과 청와대 일원의 경관을 바라볼 수 있다. 대통령 집무실이 이곳에 재현된 것은 비슷한 전망을 보여주었던 지점 어딘가에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실이 위치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하지만 건물의 재구조화 과정에서 변형이 이루어져 정확한 위치를 고증하기가 어렵다. 역대 대통령들의 초상화와 영상자료의 배치도 흥미롭다. 각각의 초상화와 영상자료는 대통령 부임의 정당성 여부와 관계없이, 부정의와 불법으로 인한 사법 처벌을 받았는가 여부와 관계없이, 그리고 재임 기간과 관계없이 동일한 공간으로 배분되어 있

다. 그리고 초상화를 게시할 수 있는 한 자리가 남겨져 있는데, 누구를 위한 것인가는 자명하다. 이와 같은 세심한 배려는 역사박물관의 정체성을 확인시켜준다.

전시 공간의 배치가 정부를 의식했음은 다음 사례에서도 살펴볼 수 있다. 건립 주체의 관점은 전시 주제의 배치에서 잘 드러나기 마련인데, 이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는 제3전시실 도입부에서 만날 수 있다. 그것은 ‘한일회담 반대운동’을 ‘시민사회의 성장과 민주주의’에 관한 부분이 아니라, ‘경제개발의 추진’ 부문에 배치한 것이다. ‘시민사회의 성장과 민주주의’에 관한 부분을 보면, 1960~1980년대 민주화운동을 전시 대상으로 하지만, 서사는 1967년의 부정선거규탄 시위로부터, 전시물들의 배치로 보면 1969년의 ‘3선 개헌 반대투쟁’을 기점으로 삼고 있다. 이는 통상의 역사 서술과 이질적이다(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연구소 엮음 2008, 391). 또한 ‘한일회담 반대운동’은 1964년에서 1965년에 걸쳐 전개되었던 일련의 사회운동을 일컫는데, 이를 특정 시점(1964. 6. 3.)에 고착시키고, “야당과 대학가에서는 이를 굴욕 매국 외교라 하여 강하게 반발하였다”로 기록했다. 이에 비해 3선 개헌과 관련해서는 ‘반대투쟁’ 또는 ‘반대운동’으로 명명하고 있는데, 마치 여당이 대통령의 의사와 무관하게 박정희의 계속 집권을 위해 3선 개헌을 추진한 것처럼 기록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례들은 역사박물관을 건립한 정부의 역사관에 대한 자기검열이자, 순응이라고 설명할 수밖에 없다. 아울러 한일협정 체결이 갖는 문제점들과 한일 간의 과거사·영토·외교 등을 쟁점으로 하는 갈등과 대립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많은 사람들의 고통과 피해가 현재에도 계속되고 있음을 밝히지 않은 것도 의논박이 전시임을 보여준다.

#### 4. 전시 공간의 재현 논리

역사박물관의 건립 배경과 목적은 전시실의 재현 담론 또는 논리가 추

구하는 것을 압축한 것이다. 이를 고찰하기 위해서는 각 전시실에 투사된 주된 재현 논리들을 주목해 살펴보아야 한다. 첫째, 전시 주제 선정과 서사 구조에 관한 것이다. 제3전시실을 관류하는 지배 담론은 ‘성장과 발전’이다. 모든 전시 내용과 서사는 이를 입증해야 한다는 강박과 지향성을 드러내고 있으며, 실제로 이와 관련하여 구성되었다. 현대사에서 성장과 발전은 여러 측면과 부문에서 고찰할 수 있지만, 역사박물관이 특히 역점을 둔 것은 ‘경제’였다. 제2전시실과 제4전시실의 전시 내용과 서사를 비교하여 보면, 제3전시실이 경제에 초점을 맞추었음이 더욱 뚜렷해진다. 역사박물관의 전시 공간은 주제들의 비연속성과 서사의 단절적 배치와 배열이 도드라져서 각 전시실들을 경제라는 관점에서 일관되게 살펴보는 것이 용이하지 않지만, 제2전시실의 ‘전후복구와 원조경제’, 제3전시실의 ‘경제개발과 산업화’, 그리고 제4전시실의 ‘경제선진국을 향하여’가 연관성을 갖는다고 할 것이다.

제3전시실은 군사정부가 경제개발 추진을 착수했다는 것으로 시작한다. 그런데 이는 “1961년에 군사 정부는 경제 개발에 착수하여 경제기획원을 설립하고 경제개발5개년계획을 추진하였다”는 문장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이전 정부들과 단절되어 있다. 또한 계획의 수립 배경과 필요성 등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지 않다.<sup>21)</sup> 이 계획이 미국의 압력으로 크게 수정·보완되었다는 점도 물론 밝히지 않았다(박태균 2007, 336). 그런데 이러한 경제개발과 산업화의 서사는 박정희 정부 시대 말기에서 사실상 종지부를 찍는다. 전두환 정부 시대의 경제개발과 산업화에 관한 내용은 찾아보기 어렵다. 1973년부터 1985년까지 건설 노동자가 중등에 진출하여 외화를

<sup>21)</sup> 경제개발의 역사와 기원에 대한 평가는 여러 가지인데, 역사박물관 서사의 흐름과 유사점이 많은 한 연구는 1950년대 공업화의 성과를 바탕으로 박정희 정부가 수출 주도공업화로 경제발전의 전략을 바꿀 수 있었다고 주장하고, 이승만 정부시대에 ‘경제개발에 대한 집권자의 의지가 시퍼렇게 살아 있’었다고 했다(이영훈 2007, 304-305). 그러나 역사박물관은 1961년 이후를 사실상 경제개발의 출발점으로 본다.

벌어들었다는 것이 거의 전부이다. “1960년부터 2000년까지 한국은 세계 최고의 경제 성장률을 기록하였다”는 표현 등은 있지만, 서사의 전반적인 흐름으로 볼 때 별 의미가 없는 수사이며, 근거도 불분명하다.

한편 제4전시실에서는 한국 경제가 선진국 반열에 들어섰음을 전제로 재연된다. IMF시대로 인한 경제적 몰락과 고통, 그로 인한 경제 질서 재편으로 사회구성원들이 겪고 있는 아픔과 절망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다. 제4전시실에서 확인할 수는 있는 시대의 그늘을 나타내는 서사는 ‘고용 안정성 저하, 청년 실업 증가, 빚쟁이 주택 소유자, 출산율 저하 등의 문제가 새로 등장했다’는 단문뿐이다. 그리고 결론부에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밝다고 전망하는 것으로 대단원의 막을 내리고 있다.

둘째, 대한민국을 이끈 주체에 관한 점이다. 이는 전시 공간을 구성하는 서사의 행위 주체가 누구인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행위 주체는 제3전시실과 제4전시실이 뚜렷하게 대조를 이룬다. 제3전시실에서는 대부분 ‘(군사) 정부’ 또는 ‘박정희 정부’, ‘한국정부’가 행위 주체로 명시되고 있다. 특히 ‘경제개발과 산업화’ 주제에 관한 전시 부문에서는 예외가 없다. 경제 성장을 주제로 하는 부분에서는 행위 주체로 기업체가 명기되기도 하고, ‘열악한 환경 하에서도 열심히 일한 국민들의 합작품이었다’는 표현을 함으로서 정부 중심의 서술이라는 비판을 방어한다. 그렇지만 당시 경제와 기업의 성장이 정부의 주도과 유착관계를 바탕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은 부인하거나 간과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러한 전시 서사의 기초는 ‘변모하는 도시와 농촌’에서는 행위 주체가 달라진다.<sup>22)</sup> 현상의 설명 부분에서는 행위의 책임 주체가 불분명해지고, 정부는 정책의 단순 집행자이거나 문제들의 해결자로 기술되고 있다. 새마을운동은 명백히 국가가 주도한 정책의 일환이었고, 다양한 수준에서 동원과 협력이 복합적으로 이루어

22) 이 부분에 ‘성장의 그늘’이라는 소주제가 포함된 것은 시민사회의 비판을 의식한 것이었다. 그런데 이 주제의 표현은 한국현대사학회 현대사교양서팀에서 발간한 책(2012, 262)과 흡사하다.

어진 산물이었다(이용기 2012, 72-73). 그러나 새마을운동에 관한 내용에서는 정부가 행위 주체라는 점이 한 차례도 언급되고 있지 않다. 전시 공간에서의 새마을운동은 자발성과 자율성에 입각한 대중운동으로 호도되고 있다.

국가는 협의로는 정부(government)를 의미하나, 광의로는 행정부를 비롯하여 입법부, 사법부 등의 제반 통치기구들을 포괄하여 정의된다(한국산업사회학회 엮음 1998, 214). 통상 대한민국이라고 하면, 포괄적 의미의 국가를 지칭하는데, 제3전시실에는 정부에 관한 얘기가 주류를 이룬다. 그런데 시대적 맥락과 배경을 고려하여 살펴보면, 이러한 재현 논리는 이상하지 않다. 특히 유신헌법에 의해 삼권분립의 근본 원칙이 무시되고, 정부가 입법부와 사법부를 모두 장악했던 시기(한국현대사학회 현대사교양서팀 2012, 205)에는 더욱 그러하다. 이는 한국이 군대체제와 같이 작동했음을 보여주는 것에 다름 아니다.

그런데 제4전시실에서는 그 동안의 주요 행위 주체였던 정부가 사라지고, 서사의 대부분에서 ‘한국’이 행위 주체로 명시되고 있다. 한국이 행위 주체로 등장하는 것은 세계 속의 한국의 위상과 역할을 보여주는데 초점을 두고자 했던 의도를 반영하기 위함이다. 이것은 국가 내의 다양한 입장들과 견해들이 통합 혹은 통일되어 있었던 것 같은 상상을 표상한다. 그리하여 6공화국에서 표출되었던 수많은 갈등과 대립 그리고 시민들의 항거가 기록될 자리를 박탈해버렸다.

셋째, 박물관의 전시는 항상 부분적이며, 다양한 가능성 가운데 선택된 결과물이다(최호림 엮음 2011, 23). 전시는 강조, 축약, 생략, 배제 등 갖가지 연출들로 구성된다. 이를 통해 박물관을 건립한 실질적 주체의 입장과 시선이 은닉되어 반영되기 마련이다. 관료와 학자 등을 비롯한 다양한 영역의 전문가들이 박물관 건립에 참여하고, 이들이 조화와 타협을 이루어 합의점에 도달한 것으로 보이지만, 내용과 재현 논리 구성에는 잘 드

러나지 않은 힘이 작용하고 있다. 역사박물관의 경우는 2~3명의 건립위원들이 주제와 서사 결정을 주도했다고 전해진다.

전시 대상을 시공간적으로 고려하면, 역사박물관의 전시 공간은 넉넉하다고 할 수 없다. 아니 협소하다고 말하는 것이 적절하다. 그래서 본관 뒤편에 신축을 하여 부족한 공간을 확보했다. 전시 공간의 부족에는 당초 구상과 달리 전시 대상이 확장되었던 것이 미친 영향이 컸다.<sup>23)</sup> 또한 전시 주제에 대해 간헐적으로 제기되었던 비판들을 모면할 방안을 고려한 결과물이었다. 전시 주제의 선정과 전시품의 선별 그리고 전시기법 등을 확정하는 환경적 요인들은 여러 가지였고 유동적이었다. 다양한 제약에도 불구하고, 제3전시실의 ‘경제개발과 산업화’ 부분에는 상대적으로 넓은 공간이 배려되었다. 특히 ‘산업 역군의 해외 진출’은 다른 전시 주제들에 비해 강조되었다. 제반 정황들을 고려하면 이 주제가 강조되었던 배경을 이해할 수 있다. 그것은 광복절 경축사에서 ‘기적의 역사’를 썼던 주인공을 예시하는 사례로 바로 이들이 언급되었고 강조되었기 때문이었다. 게다가 간호사와 광부를 서독에 파견했던 것에는 박정희 대통령의 일화가 교직되어 있다(이영석 2011, 312). 그리고 해외 인력 진출에 관한 전시부문은 이명박 대통령이 현대건설에 재직할 때 중동에 파견되어 건설노동자를 관리하고 감독하는 업무를 담당했던 것과 관련을 맺고 있다.

간호사와 광부의 파독 그리고 건설노동자의 중동 파견과 대조적으로 비슷한 시기에 베트남에 파병되었던 군인들에 대한 조명은 상대적으로 적었고, 축소되었다.<sup>24)</sup> ‘외화 수입’을 비롯하여 한미동맹, 한국군 현대화 등

<sup>23)</sup> 역사박물관 전시 대상의 출발점이 개항으로 상향되면서 전시 공간이 대폭 조정되었다.

<sup>24)</sup> 1965~1975년의 국내로의 해외 송금액 현황을 보면, 서독보다 베트남이 2배 이상이었다. 해외에서 송금액이 가장 많았던 지역은 미주였다(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2009, 215쪽). 그러므로 경제발전에 해외 송금액이 기여한 점을 강조한다면, 미주에 관한 내용이 제시되는 것이 바람직하고, 베트남전쟁 파병이 더 강조되어야 한다.

으로 보더라도 경제발전 담론에서 ‘베트남전쟁’은 중시되어야 했다.<sup>25)</sup> 역사박물관 전시에서는 베트남전쟁의 성격과 실체에 대해선 함구하고, 미국과 베트남 정부의 요청에 파병이 이루어진 것으로 간략하게 기술했다. 베트남전쟁에 관한 전시가 외교적 갈등을 유발할 수 있음을 의식해 축약 또는 생략한 것으로 인식된다.<sup>26)</sup> ‘귀국상자’를 진열관으로 이용한 것은 그동안 한국에서 선호되었던 전투 중심의 베트남전쟁 전시와 분명 다른 효과를 드러낸다. 즉 전장에서 죽음과 상흔 그리고 학살과 이데올로기 등의 쟁점들은 최소화되고, 국가의 책임과 실상을 희석시키고 있다. 베트남전쟁 파병에 관한 전시는 강조점에 따라 서사와 전시 자료가 전면적으로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 5. 맺음말

역사박물관은 한국 현대사에 관한 국가의 공식 기록과 의식이 투사된 가장 최근의 공간이다. 기록과 기억에는 시각과 관점이 투사되어 있듯이, 역사박물관의 전시 공간은 그 시대 국가권력을 장악한 이들의 역사관이 반영되어 있다. 역사박물관 건립이 근현대사를 둘러싼 치열한 논쟁의 장에 평정심과 깊은 성찰을 하게 되는 계기로 작용한다면 더할 나위 없겠으나, 현실은 이와 한참 거리가 멀어지고 있다. 역사박물관의 건립 목적으로 ‘국민의 자긍심 고양 및 국민통합으로 국가 미래발전의 원동력을 확보하고 국가브랜드 제고’가 제시되었지만, 새 정부가 표방한 5대 국정목표의

25) 베트남전쟁 파병에 대한 조명이 상대적으로 취약하다는 것은 이에 관한 부분이 도록들에 실리지 않았다는 것에서도 알 수 있다. 이외에도 도록에 전시 내용이 수록되지 않은 경우들이 있다. 이를테면, 제3전시실의 ‘시민사회의 성장과 민주주의’에 관한 전시는 “민주화운동”에 관한 규정으로 시작되지만, 도록들에는 이에 관한 내용은 누락되어 있다. 또한 ‘시민사회의 형성’이라는 주제가 도록에는 실려 있지만, 전시실에는 없다.

26) 한국과 베트남 관계와 인식의 특성 변화는 윤충로(2013, 256)를 참조.

하나가 ‘안정과 통합의 사회’인 것을 보면, 아이러니임에 분명하다.

앞으로 역사박물관에 대한 논의와 연구는 여러 가지 형태로 생산될 것이다. 여태까지와 매우 다른 과정과 경로를 걸쳐 역사박물관이 건립되었다는 점은 연구대상으로 관심을 받을 것이 충분하다. 또한 역사박물관에는 논의해야 할 쟁점들이 많이 담겨 있는데,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없는 애매한 혹은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 구조와 서사도 적지 않아 담론의 각축장이 될 것이다. 이 글에서는 역사적 사실과 평가에 대한 쟁점들을 직접 다루기보다는 전시 공간 특히 제3, 4전시실을 텍스트로 하여 공간의 연출과 재현 논리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역사박물관은 전시 공간 연출의 측면에서 보면, 건립 주체가 표방한 목적을 충실하게 달성한 것으로 보인다. 역사를 주제로 하는 또는 특정 사건을 주제로 하는 박물관이나 기념관이 채택하지 않았던, 기획한 주제를 부각시키고 관철시킨 전시 공간의 창출에 성공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전시시기법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는 조명은 역사박물관이 경제개발과 산업화 그리고 선진화와 세계화를 욕망하는 공간임을 입증해준다. 전시 자료와 전시 공간의 활용에서도 주제에 따라 명확하게 대조를 이루며, 집중과 배제의 의도가 잘 관철되었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특별한 전시 부문에 대통령 집무실의 배치한 것과 ‘한일회담 반대운동’을 경제개발 부문에 배치한 것 등은 역사박물관이 국가권력을 크게 의식하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역사박물관의 건립 목적이 충실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은 정부가 추구했던 담론과 의도가 잘 관철되었음을 대변한다. 역사박물관은 역사의 흐름과 연속성을 부차화하고, 경제 부문을 주축으로 하는 주제별 전시가 주류를 형성하고 있다. 이러한 방법은 역사에 관한 연속적 인식을 단절시키고, 목적의식적 가르침을 적절하게 작동시키기에 효과적이다. 이를 통해 전시 공간을 일관되게 압도했던 공통 담론은 ‘성장과 발전’이었다. 이는 역사박물관의 건립 목적과 담론이 선형적으로 주어지고, 이에 부합한 공간을 구

현하는 것이 과업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였다. 이를 위해 역사 박물관은 생략, 비약, 단절, 배제, 강조, 축소, 접합 등의 부담을 의식하거나 주저하지 않고 자유롭게 전시 공간에 적용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전문가가 아닌 이상 그 구체적 맥락을 찾아내기가 용이하지 않고, 재현 논리의 구체적 성격을 일일이 확인하기도 간단하지 않다.

역사박물관은 공간의 내부뿐만 아니라, 외부도 여러 생각을 하게 한다. 기본계획의 ‘건립 추진계획’에 따르면, 역사박물관 건축의 기본 개념은 ‘개방과 소통의 녹색문화시설’이었다. 이 가운데 하나가 “공간의 개방성을 높이기 위하여 문턱과 울타리가 없는 박물관으로 누구나 쉽게 접근 가능하도록 친근한 이미지로서의 공간 구성”을 한다는 것이었다. 미 대사관과 쌍둥이였던 건물의 외관이 전면적으로 개조되었던 측면도 이와 관련이 있다. 또한 담장을 제거하고 광장을 조성하여 이전과 완전히 다른 장소감을 구현했다. 광장의 많은 부분이 잔디인 관계로 거닐기에 자유롭지는 않으나, 담장과 감시카메라 그리고 경찰에 둘러싸인 미 대사관과 대조적인 경관을 드러내고 있다. 외벽이 사라지면서 건물의 입구가 주 출입구의 기능을 하게 되었다. 그런데 주 출입구 바로 앞에 문지방처럼 정초석이 놓여 있는 것이 흥미롭다. 여기에는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이라는 단어와 개관일 그리고 대통령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 이와 같이 박물관이나 기념관 입구 경계부에 정초석이 놓인 사례를 일찍이 본 적이 없다. 일반적으로 정초석은 건축물 기초부문의 모퉁이나, 관람객의 동선을 방해하지 않는 화단 등에 설치되는 것이 관례이다. 그러므로 역사박물관은 정초석을 설치하는 것에서도 새로운 선례를 창출했다고 할 수 있다.

역사박물관 개관식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역사는 끊임없이 재평가되고 재해석되는 것”이고, “사실의 음양을 균형있게 보고, 훌륭한 점은 자랑스럽게 이어가며, 잘못된 점은 뉘우치고 고쳐가는 교훈을 얻어야 한다”고 축사를 했다. 이 문장은 그 자체로만 보면, 그다지 잘못된 점을 발견하기

어렵지만, 앞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역사박물관이 기획되고 건립되는 과정은 이와 크게 달랐다. 역사박물관의 서사로 보면, 한국은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국가들 가운데 하나라고 자부되어야 할 것이다. 역사박물관은 사회구성원에게 당신이 행복하고 축복받은 희망찬 국가에서 살고 있음을 주지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인지 역사박물관이 정부의 홍보관과 기업의 산업관을 혼합해 놓은 같다는 인식을 쉽게 떨칠 수 없는데, 사회구성원들이 정말로 그러한 시대를 살고 있는가를 냉철하게 따져봐야 할 것이다.

(2013년 10월 13일 접수, 11월 5일 심사완료, 11월 27일 게재확정)

#### 참고문헌

- 강정구. 1994. 「우스갯거리가 되어버린 ‘건국’과 ‘광복」. 『경제와 사회』. 21. 10-18.
- 공제욱·조석곤 공편. 2005. 『1950-1960년대 한국형 발전모델의 원형과 그 변용과정』. 한울.
- 김성보. 2013. 「성찰이 결여된 ‘역사인식 보수대연합’의 공간,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역사비평』. 103. 132-160.
- 김아람. 2013. 「성장신화에 갇힌 박물관: 제3, 4전시실(1961년 이후)」. 『역사비평』. 104. 174-192.
- 대한민국역사박물관. 2012a.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전시안내』.
- 대한민국역사박물관. 2012b. 『대한민국역사박물관』.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연구소 엮음. 2008. 『한국민주화운동사 1』. 돌베개.
- 박명림. 2008. 「이승만의 한국 문제·동아시아·국제 관계 인식과 구상」. 『역사비평』. 83. 58-88.
- 박정자. 2008. 『시선은 권력이다』. 기파랑.

- 박태균. 2007. 『원용과 변형』. 서울대학교출판부.
- 새정치국민회의 지방자치위원회. 1998. 『「제2의 건국운동」과 지방자치의 개혁과제』.
- 신주백. 2006. 「해방인가, 광복인가?」. 『역사용어 바로쓰기』. 역사비평사. 150-154.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2009. 「파독 광부·간호사의 한국경제발전에 대한 기여의 건」. 『2008년 하반기 조사보고서 1권』.
- 양정심. 2013. 「반쪽의 역사 보여주기 :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제2전시실」. 『역사비평』. 103. 180-198.
- 윤충로. 2013. 「20세기 한국의 대 베트남 관계와 인식」. 『사회와 역사』. 97.
- 이기훈. 2013. 「굴절된 시각과 부족한 준비 : ‘역사’ 없는 역사박물관, 제1전시실」. 『역사비평』. 103. 161-179.
- 이동기. 2011. 「현대사박물관, 어떻게 만들 것인가?」. 『역사비평』. 96. 243-279.
- 이동기·홍석률. 2012.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사업 비판과 정책 대안」. 『역사비평』. 99. 284-313.
- 이영석. 2011. 「파독 광부 간호사의 한국 사회에 대한 기여 담론과 정부의 과제」. 『파독간호 평가사업 최종보고서』.
- 이영훈. 2007. 『대한민국 이야기』. 기파랑.
- 이용기. 2012. 「‘유신이념의 실천도장’, 1970년대 새마을운동」. 『내일을 여는 역사』. 48. 67-91.
- 전진성. 2004. 『박물관의 탄생』. 살림.
- 최용호. 1999. 「1970년대 전반기의 경제정책과 산업구조의 변화」. 『1970년대 전반기의 정치사회변동』. 백산서당. 67-121.
- 최호림 엮음. 2011. 『동남아시아의 박물관』. 이매진.
- 한국산업사회학회 엮음. 1998. 『사회학』. 한울.
- 한국현대사학회 현대사교양서팀. 2012. 『대한민국을 만든다』. 기파랑.
- Wolfrum Edgar 지음. 이병련·김승렬 옮김. 2007. 『무기가 된 역사』. 역사비평사.
- Anderson, Benedict. 윤희숙 역. 1991. 『상상의 공동체』. 나남.
- 金子淳 지음. 박광현 외 옮김. 2009. 「박물관의 정치학」. 논형.
- 金子淳 지음. 박민정 옮김. 2002. 「박물관의 정치성에 대해」. 『미술사논단』. 14. 65-71.

Composition, Display & Representation Logic of History Museum  
- Focused on the Exhibition Hall 3-4 of National Museum of Korean  
Contemporary History -

*Ho-Gi Jung*

National Museum of Korean Contemporary History was opened in December 2012. The construction of this museum was national project well be exposed historical view and policies of the 17th government of Korea. The mission of this museum was to implement ‘history of success’, ‘history of progress’ and ‘history of miracles’ announced by the president on independence day in 2008.

The subject of this study was exhibition 3-4 hall, which has shown to be well reflected historical perspective of National Museum of Korean Contemporary History. This study deals with some backgrounds and contexts of constructing and composition of National Museum of Korean Contemporary History, what is the point of the space direction and how did carry through the representation logic of space.

Exhibition hall 3 which was assigned to the large area and committed the most cost included Republic of Korea 3-5, in fact can be said Park Chung-hee government exhibition hall. Exhibition hall 4 targeting Republic of Korea 6 didn't show the characteristics of each government, rather emphasized to show the preferred image of Korea in the world in recent years.

Images of each period seemed to be expressed by linking illumination and theme in exhibition space, exhibition hall 3 adjusted by strength of the darkness, and exhibition hall 4 was represented by the brightness. In the

exhibition space, props, use of display techniques and placement are important, the focus is aligned the exhibition hall 3, the exhibition hall 4 is filled with high-tech electronic products.

Meanwhile, artful spatial arrangement of the president office provides a hint about location of this museum. In the representation logic of exhibition composition, exhibition hall 3 reveals the growth and development period, exhibition hall 4 shows Korea's economic level is developed countries. Given these characteristics, exhibition hall 3-4 have elements of exhibit rooms about life and society, but also have more dominant elements of public information and industrialization.

Key word : National Museum of Korean Contemporary History, Exhibition composition, Space direction, Representation logic, Politics of museum

